무한도전 식스맨 광희
그가 풀어야할 숙제들

10면

프로축구 경기 결과					
18일					19일
전북 1	전주 0	제주 0	인천 1	인천 1	울산
수원 5	수원 1	서울	부산 0	부산 2	전남
광주 0	목포 0	성남	대전 0	대전 2	포항

18번홀 티샷 워터해저드 풍덩→7m 칩인 파 극적 연장행→연장 첫 홀 140m 샷 이글 환호

두번의 기적...김세영 '마법같은 우승'

LPGA 롯데챔피언십 정상...데뷔 3개월 만에 벌써 2승

종착역에 다다른 순간, 한번도 어렵다는 기적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일어났다. 힘들어보였던 '칩인 파'(그린 밖에서 친 칩샷이 파로 연결)가 성공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샷 이글'(기준 타수보다 2타 적게 홀 아웃, 샷 이글은 통상적으로 '이글'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비공식 용어)이 나오면서 기적의 우승드라마가 완성됐다.

김세영(22·미래에셋)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의 코올리나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롯데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치며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공동 1위로 경기를 끝냈다. 연장에 돌입한 김세영은 홀까지 140m를 남겨두고 8번 아이언으로 샷을 했고, 이 볼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면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골프공 지름은 43mm이고, 홀 크기는 108mm다. 140m 떨어진 곳에서 공을 홀에 집어넣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연장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런 기적이 나올 확률은 더 더욱 낮다. 일반적으로 프로골퍼가 홀인원(타샷한 공을 한번에 홀에 넣은 것)을 기록할 확률은 3000분의 1(일반 골퍼는 2만5000분의 1)이다. 알바트로스(기준 타수보다 3타 적게 홀아웃한 것)는 이보다 더 어려운 200만분의 1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김세영의 연장 샷 이글도 그 정도로 어렵다.

기적은 정규라운드 18번홀에서도 있었다. 김세영은 안전한 티샷을 위해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티샷했다. 그러나 공은 뒤에서 불어온 바람을 타면서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 워터해저드에 빠졌다. 공동선두 박인비는 2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놔 무난히 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세영은 3번째 친 공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 남은 기회는 단 한번. 그린 밖 7m 지점에서 웨지를 꺼내 든 김세영은 홀을 향해 공을 굴렸고, 이 공이 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박인비도 파를 기록해 연장으로 이어졌다.

거짓말 같은 2번의 기적에 김세영도 놀랐다. 경기 뒤 "18번홀에서의 칩샷은 반드시 넣고 싶었다. 하지만 연장에서는 솔직히 그린에만 올리겠다는 생각이었다. 7번과 8번 아이언 중 어떤 클럽을 선택할지 고민했다. 8번 아이언을 선택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며 기뻐했다.

올해 LPGA투어에 데뷔한 김세영은 2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이어 2개월 만에 2승째를 따내며 상금랭킹과 신인왕랭킹에서 1위로 올라섰다. 우승상금 27만 달러(한화 약 2억9000만원)를 획득해 시즌 총상금 69만9735달러로 스테이시 루이스(64만8730달러)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고, 신인왕 포인트 부문에서도 626점을 얻어 김효주(20·461점)를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85점으로 선두. 김세영의 우승으로 멈춰있던 한국여자골퍼들의 우승행진도 다시 시작됐다. 한국선수들은 올해 열린 9개 대회에서 6승을 합작했다.

▶기적 같았던 그 순간 2면
주명호 기자 na1872@donga.com



◀ '역전의 여왕' 김세영이 1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의 코올리나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에서 2번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시즌 2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김세영이 18번홀에서 기적 같은 칩인 파에 성공한 뒤 하늘을 향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오아후(미국 하와이) | AP뉴시스

넥센 송신영, 3200일 만에 선발승

KIA전 선발 등판 6.2이닝 1실점
넥센, 15-4 완승...시즌 첫 스윙2015
TIRE O BANK
KBO LEAGUE'선발승'까지
10년을 들고 돌아왔다. 넥센 베테랑 투수 송신영

영(38·사진)이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처음 선발로 등판해 6.2이닝 4안타 1홈런 6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15-4 완승을 이끌었다. 현대 시절이던 2006년 7월 15일 수원 LG전에서 6이닝 4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강우필도 완봉승을 거둔 이후 무려 3200일만의 선발승이다. 가장 최근의 선발등판은 2008년 5월 17일 사직 롯데전으로, 그로부터 2528일만이다.

송신영은 팀당 144경기로 게임수가 늘어난 올 시즌 불펜 대신 5선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짧게 자주 던지는 훈련을 버리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게 훈련을 바꿨다. 불혹을 앞둔 베테랑에게 변화는 쉽지 않았으나 철저한 자기관리로 선발수업을 받았다. 2군 2차레 선발등판에서 5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방어율 2.53을 기록했다. 5선발로 먼저 출발한 김대우가 불안

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회를 잡았다. 이날 총 투구수는 99개. 칼날 같은 제구력으로 단 1개의 볼넷도 내주지 않고 경제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공격적 승부도 주효했다. 1회 KIA 선두타자 최용규를 삼진 처리한 커브(23개)를 비롯해 직구(40개)와 슬라이더(36개)를 고루 던졌다. 7회 2사 후 최희섭에게 우월1점홈런을 맞고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송신영의 활약은 선발진이 얇은 넥센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타선은 KIA 마운드를 맹폭하며 '최선참' 송신영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고종욱, 윤석민, 김하성의 홈런 한 방씩을 포함해 장단 22안타를 몰아쳤다. 3회 팀 2번째이자 시즌 5번째 선발전원안타를 작성했고, 곧바로 시즌 첫 선발전원득점을 기록했다. 넥센은 시즌 첫 스윙을 거뒀고, KIA는 4연패에 빠지면서 두 팀 모두 8승9패가 됐다.

광주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냉정과 승점 사이...포항, 대전 꺾고 4위

전남은 부산전 승리로 6위 점프
인천, 14경기 연속 무승 불명예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2015
(7R)

"상대가 하위권이라 쉽게 이긴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포항 황선홍

감독은 19일 대전월동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7라운드 원정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했다. 사실 포항의 낙승이 점쳐진 경기였다. 객관적 전력과 팀 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앞섰다. 그러나 이렇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는 것이 황 감독의 생각이다. 그는 승점 3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항 벤치의 신중함은 경기력으로 나타났다. 김승대-이광혁-문창진-티아고가 이룬 '제로톱'으로 흐름을 주

도한 포항은 전반 43분 문창진, 후반 11분 티아고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다. 최근 수비수 3~5명을 세워 재미를 본 대전은 중원에 5명을 배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패턴을 읽혔고, 힘을 잃었다. 포항은 2-0으로 이겨 4승 3패(승점 12)를 마크해 전남(18일) 1위 전북(승점 19)에 0-1로 패한 제주(승점 11)를 따돌리고 4위로 점프했다. 꼴찌 대전은 1부6패.

3위 울산(승점 13)과 홈에서 1-1로 비긴 인천은 불명예스런 팀 기록을 새로 썼다. 올 시즌 개막 7경기 연속 무승(5무2패)으로,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14경기 연속무승(9무5패)에 빠졌다. 인천의 팀 통산 최다 연속무승 기록이다. 종전은 2006년의 13경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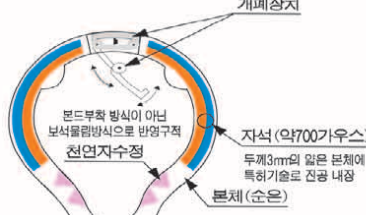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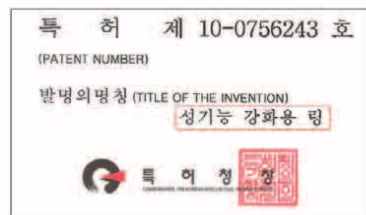
전남은 부산 원정에서 2-0으로 승리해 6위(2승4무1패·승점 10)로 점프했다. 부산은 5연패에 빠졌다.

대전 |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대표이사 서영숙

※ 홈페이지에서 김형일씨의
동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T. 1588-3346-010-8020-3346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형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떤일에 대하여 감동이나 기적을 말하죠?
제가 만난 뉴맨 또한 감동과 기적이었습니다.
배본이 붙여일건!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삶의 질을 바꾸는 '뉴맨!!' 감동하십시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벌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 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문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맨'

사용 즉시 나타나는 막강 파워!
1.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2.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15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T.1588-3346-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소프트

세계인의 자존심 '뉴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 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발명시 사이즈	뉴맨 사이즈
6.50이하	초분 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초분 제작